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59>

JCCT 2019-2-8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Nursing Ethics Values of Nursing Students

김미화

Mi-Hwa Kim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1일까지 D지역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80명을 대상에게 연구를 설명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간호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ANOVA 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é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150점 만점에 97.51±8.96점 인 것으로 나타나 의무론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학생들은 의무론적 입장이 더 우세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리주의 입장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임상현장에서 있을 여러 가지 간호딜레마 상황에 놓였을 때, 철학적인 사고를 통한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학생간호사, 공리주의, 의무론, 간호윤리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ontology and utilitarianism on the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14 to June 1, 2018 in 180 students of a university nursing student in Daegu who explained their research and agreed to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nursing-related characteristics, the independent t-test and ANOVA were used, and the post-test was conducted using the Schéffe post-test. The ethical values of the nursing students were 97.51 ± 8.96 out of 150, indicating that they were inclined toward the position of deontology. The first grade students were more dominant, and the higher the grade, the more inclined toward utilitarianism.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to establish ethical values so that ethical decision making can be done through philosophical thinking when various nursing dilemma situations in the clinical field are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Student nurs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ursing ethics, utilitarianism

*정회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접수일: 2019년 1월 31일, 수정완료일: 2019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8일

Received: January 30, 2019 / Revised: February 11, 2019
Accepted: February 18, 2019
*Corresponding Author: kmh9781@hanmail.net
39913 Kyongbuk Science College, Dept. Nuring, 634,
Jisan-ro, Gisan-myeon, Chigok-gun, Gyeongbuk Korea

1. 서 론

생명과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켰으며, 개인의 윤리적 신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생명과학, 생명공학, 의학, 법학 철학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로서 2004년 1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17년 8월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2]. 간호학은 인본주의와 박애주의 생명존중을 기본이념을 발전되어 왔으며 간호실무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과 간호윤리가 강조되는 전문직이다[3]. 인간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간호사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과 문제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히, 법적인 책임이나 윤리적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도적 법률안에서만 선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철학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철학의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간호대학에서는 철학 교과목과 간호윤리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윤리적 가치관과 직업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간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 윤리 교육은 인간생명, 권리,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4], 윤리적 상황에 대해 비평적 사고를 통해서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준다[5]. 이는 향후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며[6], 전문직 간호사로서 행하는 간호행위와도 직결되므로 더욱 중요하다[7].

윤리이론 중 의무론은 ‘어떤 행위가 적절한 도덕 규칙에 부합될 경우 옳은 행위이며 그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 그른 행위가 된다’는 법칙론적인 접근방식이다[8].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을 간호상황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이유는 임상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 중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존중되기 지켜야 할 절대 가치가 있고, 행위의 결과보다는 취해진 행동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철학자 벤담과 밀에 의해 주장된 공리주의는 어떤 의도나 원인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선의 유무가 윤리행동의 척도가 된다는 것으로 수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된다. 공리주의를 간호윤리에 적용하면,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통 받는 사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무의식 환자의 생사에 관해서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살이나 안락사의 행위도 욕구의 최대만족과 최소의 좌절을 가져올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된다. 이처럼 윤리적 가치관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개념으로 정의되며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윤리적 행위는 직업에 대한 주체성, 가치관 같은 긍정적인 자아인식의 기반 위에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한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간호학생의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하여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과 간호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2.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가치관을 확인한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윤리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한다.
4. 간호대학생의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윤리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D지역 소재, 4년제 간호대학 1,2,3 학년학생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1학년 학생들은 간호윤리학을 수강하지 않았으며, 2학년 학생들은 간호윤리학을 수강 하였지만, 임상실습은 하지 않았다. 3학년 학생들은 간호윤리학 수강과 임상현장 실습을 실시한 학생들이다.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시행되었으며, 19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17부를 제외한 총 180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간호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종교, 거주상태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간호관련 특성으로는 간호사로부터 돌봄을 받았거나, 돌봄 제공을 본적이 있는 '본인의 입원경험'과 '가족의 입원경험'을 확인하였으며,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는지와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와 관련된 보도를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간호학과의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2) 간호윤리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Lee[11]가 개발한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하부 영역으로는 생명존중에 관한 문항 9문항,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관계영역 9문항, 간호사와 전문직 업무간의 관계영역 8문항, 간호사와 협동자간의 관계영역 4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찬성한다' 1점부터 '반대한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30~150 점이다.

도구의 구체적 하부영역은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입장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론적 문항들은

역환산하였다[12]. 즉, 절대적 공리주의 입장은 1점, 절대적 의무론적 입장을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kwon[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개인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과 연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간호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é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세였으며, 20세 이하가 100명(55.6%)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학생이 134명(74.4%), 학년은 3학년이 86명(47.8%)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107명(59.4%)로 가장 많았다. 거주상태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 91명(50.6%)을 차지하였다. 간호학생 본인의 입원 경험은 94명(52.2%)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의 입원 경험은 143명(79.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호학생 중에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간호사와 관련된 보도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8명(93.3%)이었으며 간호학과의 만족도는 113명(6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학생의 입학 동기 중 취업보장이 66명(36.7%)로 가장 많았으며 소명감 또는 봉사실천이 36명(20%), 가족이나 주위 권유 31명(17.2%) 순 이었다.

2. 대상자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간호학생의 일반적 간호관련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의 하부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학년에 따라서는 인간생명 영역과 대상자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 생명 영역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의무론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관계 영역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의무론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 중 대상자 관계영역에서는 거주상태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 함께 사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보다 공리주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생명영역에서는 본인이 입원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윤리적 가치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령, 성별, 종교, 가족 입원 경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추후 전문직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의 간호윤리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크게 인간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에서 윤리적 문제, 간호사와 전문직 간호업무 관계에서의 윤리적 문제,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의 전체적인 수준은 150점 만점 중에서 평균97.51점으로 의무론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kwon(11)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의무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4개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대상자 관계영역과 협동자 관계영역이 의무론의 입장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 이는 Lee[3]의 연구결과에서 협동자 관계영역이 의무론의 입장에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간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는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 했을 때 살 가능성이 적은 경우,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연장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태아를 중절 시킬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등의 윤리적 문제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간호 대학생들은 건강회복 가능성이 낮은 선천성 기형아에게는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우세하였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안락사나 불치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인간생명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환자의 자율성에 더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고통이 심한 환자들이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생의 학년에 따라서 인간생명 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학년 학생들이 의무론적 입장이 우세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리주의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3]의 연구결과에서 1학년 때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다가 추후 검증 1년 후에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간호가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임상실습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공리주의적 입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하였다. 하지만 Park[14]의 연구에서는 1학년 때는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다가 1년 후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그 후, 임상실습과 윤리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강한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1학년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사고를 하다가, 임상현장에서 여러 가지 실제 딜레마를 보게 되면서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다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의무론적 태도로 정립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12][15].

본 연구에서는 4학년을 제외한 1,2,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간호학생의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은 간호학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학과와 만족도가 높은 간호학생이 낮거나 보통인 학생보다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3]의 연구에서 간호학과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이 매우 불만족한 학생보다 의무론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여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 지역 소재, 4년제 간호대학 1,2,3,학년 180명이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또는 ANOVA 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é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의 4가지 하부 영역의 총점은 150점 만점 중에서 평균 97.51점으로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구체적 하부 영역중 인간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더 기울어져 있었으며 대상자 관계영역과 협동자 관계영역에서는 의무론적 입장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간호윤리 가치관의 차이는 인간생명 영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학년 학생들은 의무론적 입장이 더 우세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리주의 입장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들의 추후에 임상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간호딜레마 상황에 놓였을때, 철학적인 사고를 통한 판단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간호 윤리 가치관 확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 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ean±SD(n, %)
Grade	3rd	86(7.8)
Religion	Christian	37(0.6)
	None	107(9.4)
Residence status	With Family	62(34.4)
	dormitory	91(50.6)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94(52.2)
	No	86(47.8)
Family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43(79.4)
	No	37(20.6)
In the family nurse	Yes	57(31.7)
	No	123(68.3)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High	113(62.3)
	Middle	62(34.4)
Motivation for admission	Job security	66(36.7)
	A sense of calling or attendance	36(20)

표.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ethical values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SD	t or F	p
Age	Under 20 years	97.86±8.94	1.29	0.281
	21-25 years	96.86±8.86		
	26-30 years	95.73±9.18		
	31year old	106.33±10.69		
Gender	Male	25.43±5.57	0.40	0.689
	Female	25.07±4.13		
Grade	1st	98.10±9.96	1.39	0.251
	2nd	99.02±9.47		
	3rd	96.40±8.00		
Religion	Yes	97.84±9.81	0.41	0.684
	No	97.28±8.38		
Residence status	Yes	96.16±8.27	-1.46	0.145
	No	98.21±9.26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98.37±9.95	1.36	0.176
	No	96.56±7.70		
Family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96.65±9.47	-1.33	0.184
	No	98.43±8.35		
In the family nurse	Yes	97.67±9.94	0.16	0.870
	No	97.43±8.52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High	98.79±8.98	3.45	0.034 (a>b)
	Middle	95.56±8.71		
	Low	92.60±6.58		

표.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_하위영역의 차이

Table. 3 Ethical values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_ Differences in sub-regions

(N=180)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Human Life domain			Subject relationship domain			Nurse Practice domain			Partner Relationship domai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5.43±5.57	0.400	0.689	31.82±4.60	-0.68	0.5	24.52±24.45	0.11	0.913	15.60±2.27	-0.16	0.874
	Female	25.05±4.13			32.34±4.44			24.45±3.40			15.67±2.34		
Grade	1 st	27.27±3.97			30.57±4.95			24.25±3.54			16.00±2.33		
	2 nd	25.26±4.43	9.960	<.001	33.51±5.06	5.77	0.004	24.74±3.72	0.22	0.804	15.51±2.55	0.78	0.459
	3 rd	23.87±4.46			32.53±3.54			24.47±3.53			15.52±2.20		
Religion	YES	25.36±4.53	0.460	0.644	32.04±4.83	-0.42	0.675	24.66±3.58	0.58	0.566	15.78±2.44	0.6	0.551
	NO	25.04±4.54			32.33±4.24			24.35±3.57			15.57±2.24		
Residence	YES	24.76±4.50	-0.880	0.382	31.27±3.95	-2.05	0.041	24.30±3.10	-0.451	0.652	15.82±2.41	0.699	0.486
	NO	25.38±4.55			32.70±4.67			24.56±3.79			15.57±2.28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25.76±4.86	1.840	0.068	32.01±4.93	-0.63	0.531	24.69±3.48	0.862	0.39	15.91±2.43	1.57	0.117
	NO	24.52±4.07			32.43±3.94			24.23±3.65			15.37±2.17		
Family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94.61±4.75	-1.710	0.09	32.16±4.31	-0.154	0.878	24.17±3.63	-1.17	0.244	15.70±2.27	0.26	0.796
	NO	25.76±4.22			32.26±4.67			24.79±3.49			15.61±2.39		
In the family nurse	YES	25.26±5.38	0.190	0.864	32.23±4.92	0.04	0.973	24.47±3.27	0.004	0.997	15.70±2.34	0.18	0.856
	NO	25.12±4.10			32.20±4.27			24.47±3.70			15.63±2.32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High	25.59±4.71			32.47±4.39			24.89±3.45			15.84±2.17		
	Middle	24.69±3.96	2.620	0.076	31.97±4.38	1.27	0.284	23.69±3.80	2.29	0.104	15.21±2.38	2.38	0.096
	Low	21.40±5.55			29.40±7.23			24.80±.83			17.00±4.12		

References

- [1] Lee, J. W. (2012). The ethical problems on defining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69(3), 271-295.
- [2]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 Act on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Retrieved January 11, 2017, from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ebsite: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823&efYd=2017#0000>
- [3] Kwon, Y. H. (2009).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 262-272.
- [4] Ahn, H. Y., Cho, B. S., Choi, S. H., Choi, W., & Go, Y. M. (2008).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 98-107.
- [5] Kwon, Y. H. (2009).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 262-272.
- [6] Ha, J. Y., Kim, D. H., & Whang, S. K. (2009).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216-224.
- [7] Moon, K. A. (2002). A bio-med ethical study on euthanasia: focused on the problem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8] Brody, B.A.(1988). *Life and Death Decisionmaking*, Oxford University.
- [9] Lee KH, Chong SW. A study on the status and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nursing colleg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2013;8(1):111-140.
- [10] Kim, E. A., Park, H. Y., & Choi, S. E. (2014).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7(2), 144-15
- [11] Lee, Y. S. (1990).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 249-270.
- [12] Kwon, Y. M. (2002) A Study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8(1), 17-28.
- [13] Park, M. H. (2000). The Patterns of Change in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2), 199-217.
- [14] Kim HR, Ahn SH. Moral sensitivity and moral distress among Korean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0;13(4):321-336.
- [15] Choi E. Y. (2018).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among General Hospital Nurs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2018;4(4):249-259